

육군대학 총장 기석복 장군.

기석복 장군이 육군대학 총장으로 1954년 11월에
 명령받기전까지는 육군대학 총장으로 제 6 야전군 사령관
 공화국 오공영웅, 중국의용군 출신, 전투에서 가장 용맹스럽다고
 명성을 떨친 군사간부 방호산 중장이 총장으로 제쳤다.
 방장군은 육군대학 총장직무에 가장 적임자로 제쳤으며, 전
 체 교직원들의 총애를 받아왔다 그러나 사산검도 운동이 가열
 하게 진행되자 김일성 자체보다 또 그 일파들에 비하여 으뜸가
 는 간부들이라면 용량 허단하는 바람에 그 지혜스럽고 능명한
 군사간부 방호산 장군도 출직 후복당하게 되었으며, 그지리에
 기석복 장군이 후임으로 가게 되었다. 기석복 선생을 녹음
 식할시 환경에 대하여 만민군 총정치국장 최종학 대장이
 최고사령부 군사위원회에서 기석복 장군이 그 직무에 적임자라
 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 최고사령
 관 김일성 원수는 공화국 최고간부들중에서 육군대학 총장의
 직무에 적임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공화국내의 9명의
 도당위원장들의 명단을 내어놓고 보다가 또다시 다른
 수첩을 열고 보신다음 당시 외무성 부장으로 개성 빛 제네바
 평화 단판 회의에 공화국 대표로 남일 대장과 같이 참석함
 기석복 장군을 적임자로 집혔다고 - 말하였다.

물론 당적-정치적으로 준비된 명을 따져볼때 기석복
 장군은 완전히 준비된 간부였다. 그러나 육군대학 총장
 직무에는 군사 과학에 대한 경깊이 풍부한 간부가 요구되었다.
 그렇게 군사 과학면에서 노숙한 간부들이 또 유식간부들이
 얼마든지 없었으나 그들은 전부다 중국 의용군 출신이어서
 김일성은 언정도 하지 아니하였다. 빨찌산 출신으로는

그런 간부들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 다 대부분은 군사 이론적으로
무식하였기 때문이다.

기석복 장군은 육군대학 총장으로 약 일년반 제했다.
비록 정첩은 기한어나라 대학내에서 많은 일들을 하여놓았
으며, 대학의 위신을 전국적 범위에 떨치세웠다. 우선 군사
규율, 상학체제, 일반지도부들을 엄격하게 그 어느 때보다도 군사규
정대로 제도화 하였다. 특히 사회과학은 사회학부장 송여경 박사
를 그 부를 담당지도자로 배치하고 전국 과학계의 위신을 높여
공화국 최고간부들의 모임에서 진행되는 정치-사회과학 강연들
과 각 대학교원들을 위한 세미나들과 또 각종 선전 일꾼들을
위한 세미나-토론회들은 거이나 독점하였다. 나아가서 군사과학
분야에서의 조직-이론상학들도 문제 없이 잘 진행되었다 그것은 대학
내에 있는 군사 전문 교원들 외에 전략전술에 대한 문제와 군사예술포
에 대한 문제에서 중요한 제목들을 취급할 때에든 반듯이 김웅
복상이나, 박승과 일반 부참모장, 장평산 제 4군단장 등 아주 유익
하고 군사적 면에서 경험의 풍부한 원재들을 리용하는가 하면, 소
련 군사 아카데미에 갈 여태 금방 나온 유성철, 정학준 등 조국
전쟁의 작전지도를 작성하던 간부들을 리용함으로써 육군대학
교육체제 위신이 아주 엄청나게 높아졌다.

그러나 저들은 좌석에 앉아서서는 김일성 원수에게는 이것도
다 필요 없었다. 원수의 "어머니" 김일성이든 문제를 취급할 때
단순하게 보려는 : 자, 육군대학 일이 잘되어간다, 그런데 거기
기에서 누가 조직지도 하느냐? 소련 출신간부가 일한다,
자, 그러면 그것이 위험하다, 때문에 적당한 기획을 만들고
그 조직지도자를 잡아야 된다고 계획하였다.

앞의 그 때가 돌아왔다. 그것의 바를 "당의 사상포선
에 있어서 프조주의, 관료주의, 사대주의 등 독소를 청산할 때

대한 당의 제과업"이란 문제를 로동당 전위원회에서³
취급한 그때였다.

기석복 장군은 1913년에 원동변방 연해주 니스니
블라지워스도크 지역 네지노촌 빈천농민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는 8살 되던 해 불어 향촌 초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하여 1925년에 초학교를 마치고, 그해
에 블라지워스도크시 초중에 입학하여 1928년에 그 학교를
졸업했다. 학기 방학동안 집에 돌아와 사범전문학교에 입학할
예정으로 시험준비를 잘하여가지고 니콜스크 유부리스크시에 있는
원동에 유일한 한인 사범전문학교 입학시험을 보려서 그 학교
에 입학하게 되었다. 1932년에 블라지워스도크에 사범대학
이 열리기전까지는 이 전문학교가 가장 수준의 높은 한인학
교로서 당시 조선에 있어서 많은 한인 간부들을 양성하였다. 기석복
장군은 이 사권을 수습한 성적으로 1931년에 마간한다음 원
동변방 공산당 중앙 위원회의 파견에 의하여 하바롭스크시
한인 공산대학에 가서 신문을 기자 일년강습을 필하고 원동변
방 교육출판국 교사로 평안관리국에서 부책임자로 1932년
9월말까지 일하다가 1932년 10월부터 1937년 7월까지
지 연해주 물진구역 초중에서 부교장 겸 교육책임으로 일
하였다. 1937년에 블라지워스도크 한인 사범대학에 입
학하였으나 원동변방에 살고 있던 전체 한인들의 강제이주로
알미야라 가자흐 공화국 크를노르다시에 대학을 따라
오게 되었다. 원동에서 가고 어사하여온 대학이 아직 아무런 소
급적 질서도 잡힐수 없었다. 특히나 선생님중 유능한 박사 학사
들은 전부다 블라지워스도크에서 불어 체포감금하기 시작하
여 제자리에 도착할때까지 체포하다보니, 인제는 조선어로 강
이 할수있는 교원들은 전부다 없어졌다. 대부분 할수없이 카사흐공
화국 교육성 직위에 따라 다른 도시들로 여류 교원들로 받게되었다.
후러

기석복 선생은 구성된 환경을 각 방면으로 판단한다음 강령이주에 의하여 자기 부모친척이 도착한 샤아르간드시에 전향하여 가게되었다. 특히나 가장 중대한것은 한국어로 대학을 다간 하던 계획이 파탄되자 자기 친척 부모들이 계신 우즈베크 공화국 샤아르간드 시에 와 종합대학 어문학부에서 공부를 계속하였다. 이때에는, 즉 1938년 학년도부터는 조선어 교육 체계는 일학년: 불어 대학까지 폐지하고 전반적으로 러시아어로 완전히 넘어가게되었다. 이것이 바로 현재 구소련에 살고있던 한인들여 자기 언어, 문화 풍습까지 잃게된 비극의 참사였다. 쓰달린은 전 체한인들의 얼을 영영 청산하기 위하여 전체 한인인테리들로 겁 거 후속 처단하였다. 처단 받은 한인들의 죄명은 전부다 유일하게 "일본노파이" 라는 명목이었다. 기석복은 1941년에 대학 어문학부를 러시아로 필하고 샤아르간드주 바바브느-다르곰노크 구역 고중 교장으로 임명받아 1945년 8월까지 소련의 조국전쟁의 가장 극난한시기에 전역로 다하면서 일하였다.

1945년 5월 9일에, 소련은 간고한 조국전쟁 4년동안에 파노독일군을 완전히 패망시키고 권승권을 기념하게 되었다. 소련은 이것으로 위대한 조국전쟁을 끝냈하려 하지 않고, 더나가서 항상 동쪽에서 소련을 위협하고 있던 일제를 패망시키고 꾸릴 열도 남화해, 오동반도 등을 회복하여, 조선반도에 대한 각기 명령도 회복하려 하였다. 이것을 위하여 전승 기념후 소련 정부는 필수있을때를 비밀리에 서북전선에서 전후에 참가하고 있던 북대들을 급속하게 원동철강 연애국, 사바이칼 중국국 경 연선에 배치하고 일제와의 전쟁을 노골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다. 이때에 바로 기석복 선생도 다른 많은 한인 인테리들과 함께 구역 군사동원부의 초빙 명령을 받게 되었다. 전쟁시기에는 불신업분과로서 현역에 공병까지 나와 많은 불만을 품고있던

한번 황년들은 아주 즐겁게 군사 초병 생활서들은 정수하고 동족전 5. 선에 나가게 되었다.

1945년 8월 초순에 소련군에 초병된 기석복 선생은 원동(원강) 만주 국경선에 밀려 광동군과 결사전에 만단이 권비를 가 추고 있는 소련군 제25군단 최사(최보) 대장의 관할하에 있는 정치부 부장 그로보브 대좌의 영솔하에서 복무하게 되었다. 만주와 북한 지역을 열리로 불어 완전히 해방하기 전까지는 소만 국경으로 불어 시작하여 평양에 이르기까지 전체 동만 지역을 횡단 하여가면서 소군 정치부의 총역인으로 복무하였으며, 1946년 말까지는 김일성 별파제산 부대를 기관으로 한 조선인원군 조직에 소련 고문관들과 함께 주력하였다.

1947년 초에 기석복 선생은 소장 군사 칭호를 받고 군사정치학교 교장으로 임명되어 1948년 정월까지 복무하였으며, 1948년 2월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장으로 전근되었는데, 1948년 7월에 소집되었던 조선로동당 제1차 당대회는 기선생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으로 선거하면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로동신문" 총주필로 임명하였다.

이 시기에 기선생의 활동은 아주 대단하였다. 당시 남북대립의 연석회의, 공화국 당정부 지도층에 많은 남한간부들이 선출되어 치리하면서 북한의 정치적 환경은 아주 광활해져서 이면에서도 북경하게 되었다. 이때에 북한정부는 남한에서 비밀리에 선거하였다는 남한 대의원들을 초빙하여 다 놓고 소의 연립정부를 꾸린 다음에 남한을 강권하기 위한 사회정치적 분위기를 인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각 출판물들을 통하여 대남 보도를 위해 확장하였으며 라디오 방송시간도 대대적으로 확장하여 밤낮 우주공간을 건동시켰다. 다음 6.25 남침 직전에는 남북통일은 남북한 인민들의 결의에 따라 할수 있다는 명목하에 남한 정부, 국회, 인민들에게

보내는 최후통첩인 문항을 지워 남한 대의원 31명을 3.8선⁶을 통하여 서울로 보내었으나 그들로 비법적 일꾼자로 취급된 2인후에 북한은 남침을 저지려놓았던 것이다. 어떻게 인공적으로 전쟁환경을 조성시켜 온 수단한 인생을 살려한 부정적 전쟁을 정의의 전쟁으로 초기된 기선생은 그래도 성실 성의를 다하여 당조직 선전사업으로 강화하였다.

1950년 8월 불어 연인군 전진이 완전히 두절되고 각동감계선에서 불어 패잔병이 된 연인군대는 무질서하게 분산되어 산간 길을 통하여 후퇴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이시기에는 출판 불어나 라디오가 조성된 환경으로 크게 수용할수 없었다. 때문에 로동당 중앙위원회는 기선생 선생을 1950년 11월에 문화선전성 차관으로 조동시켰다. 물론 이시기에는 북한이 일화진공에서 실패한 당하였으나 그러나 몰락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일어난지 발전하여, 다시한번 자기 공세를 세계에 보여줄수 있다는 것을 세계 각국에 자랑하기 위하여 연인군 협곡단 공화국 중앙 예술단등을 조직하여가지고 각 나라들에 돌아 다니며 순회 공연로 하여, 그 나라들과 우호 관계를 견고히하여, 경제적 협조도 받아보았던 것이다. 이 시기에 기선생의 역할이 아주 거대 하였나 기선생은 문화선전성 부장으로 제 유럽 나라들, 몽고, 중국, 일본, 인도, 캐나다 까지 일주하면서 공화국의 국제적 위신 제고와 문화교류에서 큰 사업을 하였다. 1953년 정전이 되자 기선생은 공화국 외부성 제1부장으로 취임되어 대각 부수상 **삼 일** 장군과 함께 개성 및 세네바시에서 조선전쟁 평화 단판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대표하여 로동당이 지시한대로 공화국의 리익을 옹호하여 수차례 발언하였다. 이때에 기선생은 조선전쟁의 후과문제로 전하여 수차례 중국, 일본, 소련등에 다니면서 동족상잔에서의 북한의 역할 그 정책의 "정당"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1954년이 끝날 무렵, 북한 전인민의 "아버이" 김일성은⁷
간부 청산-사상검토 운동을 높이 추진시켜 중국 의용군 출신 간부
들 중 으뜸이 되는 모조리가면서 자라기 시작하였다. 바로 이때에
남침 제1차 공격시에 삼일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수원 대전
등 남한 도시들로 영웅적으로 해방 식었다는 공훈으로 영웅칭호를
주었으며, 후회시기에도 작기 관하 부대 구분대들을 하나도 분산시키
지 않고 집체적으로 영동하면서 유학에 걸치는 진흥로써 적의
포위망을 뚫고 삼의 길을 개척하면서 중국의 국경까지 도착
하였다 하여 또 다시 영웅칭호를 수여하여 2중 영웅이 된 방
호산 장군이 육군대학 총장으로 제쳤다. 방호산 장군은 야전군
장군들 중에서 가장 용맹스럽고 지혜롭고 장군으로서 전국에
영성을 떨치던 군사 지휘관으로서 육군대학 총장으로 추대
되며 사업도 잘하고 위신도 높아 제쳤다. 이례화서는 그
이름 처단할 때가 되어서인지, 일차 전공시베고이 적으로 시간을
늦추면서, 서울 점령후 삼일 동안이나 서울에서 머물고 있어
공격전에 "해독을 죽" 반당, 반혁명분자로 유명시워 철저
추방하였던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기석복 선생은 최고인민회의의 정령에 따라
군사 칭호 증장을 받고 육군대학 총장으로 추대되었다. 이렇게 기석복
장군은 육군대학 총장으로 1955년 12월에 옮겨가기는 하였으나
이것은 김일성의 간부정책에 있어서 간부들을 조직적으로 고어디
로 언저 보내는 임시 정박소였으며, 김일성 원수의 간교한 간부
정책이었다. 그러나 기석복 장군은 김일성 "아버이"를 속심 깊게
믿고, 모든 힘을 다하여 군사야가 세리야를 늘려 수중에 들
려 세웠다. 1955년 12월에 당의 문화 조선에 있어서 교
조주의, 관료주의 사대주의를 반대하여 정동혁, 정열, 기석복 등
조선파 문화 조선일꾼들을 비판할 때에는 기석복 장군은 자
기가 소리쳤던것으로 할지 되었다. 동 회의에서 기석복 장군

평을 문화선전성 부상, 정동혁 등 기타 많은 노련 출신 간부
들은 당적으로 엄중하고 책벌을 받은 모든 현직에서 철거
되어 하급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기석복 선생은 육군대학 총장으로 오기전까지 만하여도 공화국에서
논쟁하여 존경받던 간부로서 공화국을 대표하여 개성경전 단판회의
제네바 정전판회의에 참가할것을 제의하고서도 항상 당과 정부의
주책을 걸머지고 유석대준로 월남, 몽골, 인도 및 캐나다에까지 가서
앞으로 평화에 대한 문제와 공화국 위신을 세계 무대에 떨치려
적극 노력하여 전연년적 언정을 받게 되었다.

판로쿠이니, 교조쿠이니, 또 사대쿠이니 하는 명목으로 취벌, 철
거 당한것을 - 당의 문화정치로선에서 노련파를 청산하자
김일성의 출생이란것을 기석복 선생은 명확하게 알게 된후
공화국 드시출판사 사장으로 임명되었다.

이때부터 기 선생은 안목을 더욱더 주야로 크게 고린하게 되
었다. 대관절 언젠은 완전히 성숙된 국가 조직 간부로서 나라를
건설하여놓고, 그 나라 간부들이 동심 호상 신임하면서 서로 같이 사
업하던 사람들이. 외형으로는 서로 인사는 하나, 내심은 전혀 다른판에,
서로 망나기 무서워하고, 말하기 두려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것이
김일성이 저지러 놓은 사상검토 결과이다. 원래는 가까운 친구도,
형도, 동지도 있는, 상호간 적이 되여 가지고, 누가 어디서 누구하고
무슨 말을 하는가 하는 것을 밀수하여 가지고 상부에 밀고하여
가지고 자기신임만 높이자고 것이었다. 이런 조건하에서는 논
에 아무런 힘도 보이지 않아 일할수가 없고, 태일에 대한 신심
이 없어져서 단축할수가 전혀 없었다. 그러므로 기 선생은
밤낮 생각하고 다시 생각한것은 - 내가 부모의 고향, 조선을 해방
하고 나라를 건설하고 행복하게 살면서 그 행복을 후손 만대에게
넘겨주기 위하여 또다시, 우리부모들이 보따리를 걸머지고

살길을 찾다 원동 (변강)에 가던 모양으로 가야 되겠는가?
 아냐 가야 되겠는가? 하는것이 제일큰 문제였다. 그런데 자기가
 사상검토 결과에 의하여 비판받고, 출직되고 또 아래로 내리
 력은것은 전부다 둘째 문제고, 앞으로 이 당당들이 나에게
 대한 한압과 압박을 이에서 끌치겠는가? 하는것이 의문이며,
 가족이나 살려두겠는가? 하는것이 의문이었다. 그런데 보면, 2-3
 년전에 이런 공경을 당하였던 간부들의 경노를 보면 이 한압이
 한 공회로서 끝나게것이 아니라 다시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내공에
 는 물론 협동조합이나 한광, 철광산, 벌목장등에 보내여가지고, 억지
 못하고 입지못하는것도 또 참을수 있는게 원천과 도덕적 결시에
 따라 이어 병내서 죽거나 그렇지 아니면 하부노동장 열성자들에게
 게 때맞아 죽는일이 있으며, 그들의 야질과, 농림관에 식달려
 길가에서 자빠져 죽는일이 종종있었다. 그런데 한압당한 간부
 들을 하부로 내려보낼때에는 1-2년 후에 당은 관대하게 처
 리하여 도루 돌려온다고 하였으나, 아래로 내려갔던 사람이
 도루 복귀한 사람은 전공화국을 걸쳐서도 한명도 없었다. 아래
 로 내려가는 간부들은, 대학다니던 학생도 출학시켜 같이 내려보
 내며, 지역은 외국에 유학갔던 대학생이나 유학생도 호출하
 여 경치범 수용소에 보내곤하였다. 이렇게 악독한 정책을 잘
 알게된 기선생은 소련에 돌아가 자타는 아이들이나 공부시켜고
 자기는 단 일년간 앞으로 떠난다고 하여도 안심하고 호화롭게
 배위에 대한 신심으로 살려고 결심하였다.

기선생은 1957년에 평양을 눈물로 아별하고 아들삼형제
 를 데리고 압록강을 건너 만주를 횡단하면서, 1945년 8월
 에 조국해방을 위하여 노란 국경을 넘어 산채거역, 훈춘
 길림을 통하여 심양을 거쳐 평양에 들어가 단일을 다시 한번
 희생하면서 동년 11월에 모스크바에 도착하였다.

평양을 출발하여 모스크바로 오는 8일 동안 기생생은 많은 환호
 도 쉬고 아이들아 보지않게 놀들도 많이 놀았다. 그러나 한두어
 떠나기는 하였으나 남-방치는 안고, 그래서 한 2-3년 지나면
 북한이 정치도 변질되어 돌아가게 될것을 희망하였다 또 소련
 공산당 지도부에서도 그렇게 말하였다:- 중앙 아시아 친척 친구
 들도 있고, 또 기후조건도 아주 따뜻하여, 가서서 고급대학교
 에서 한 사년간 정치 경제적 이론을 잘 연마 하려면 시간을
 보내노라하면 조선의 정치적 환경도 바로 잡힐 터이니 그대에
 투옥 나가도 좋하시고, 현재에는 품 유식하도록 하시오- 하였다
 이 말은 조선에서 돌아오는 전체 간부들에게 다 이렇게 말
 하였다. 기생생은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피견서를 받아가지고
 우즈베크 공화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도착하니 중앙대학교는 벌써
 새 학년도를 시작하여 약 3개월 동안 공부하고 상반년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였다. 그러나 기생생은 본래 16년전에 대학하나를 필
 한 노동한 이론가로서 변질이나 떨어졌으나 먼저 시작한 학생
 -연구생들을 따라가며 앞서가면서 공부하였다. 다슈켄츠에 도
 착하자 국가의 혜택으로 임금 사택 용방짜리를 배정받았
 으며, 할비 1천 800 루블리, 매 부양가족당 500루블리 합 2천
 600 루블리나 받아 경제적으로 넉넉한 생활을 하면서 공부
 하였다. 당시 1천 루블리는 달러와의 환율이 1달러에 2.8
 루블리로 계산되었던바 당시 2천 600 루블리는 아주 큰 돈이었다.
 러시아엔 백미 1킬로당 70-80전, 소고기 1킬로 1.5-2루
 블리, 아주 고급 양복 1벌에 80-100 루블리였다. **이기에 돈**
아와 당학교에서 학습을 시작하고 보니 우선 제일 좋은것은 절대
적 자유가 보장된 것이었었다, 그로인하여 래일 에 대한 신심이
있어 모든 사업은 자기계획대로 되여가고 있었다. 북한에서 돌아온 사
람들은 직기원적으로 따라 각도에 4간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다슈켄츠 시 출산사옥 등에 사색들을 배정받아 모두다 한심척차

11.
쉽 살아 왔으며, 아이들도 대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한
학교에서 일학년, 초급 및 고급까지 다니게 되어 똑같이 평안
같기도 하였다. 특히나 누리의 생일이니 또 다른 명절날이면
거이나 다 한집에 몰려온 하였다. 유가족 후원회에서 장학하고 있
는 홍계에 의하면 북한으로 불어 우르베크탄에 돌아온 전체 가족
은 86 가족이며, 다슈켄은 시내에서 살고있는 가족은 62세
대였다. 우르베크탄에서 북한에 떠난 가족수는 공화국 중앙고
문서 홍계에 의하면 262가^족 1945-1948년 사이 떠나 갔다고
밝혀 있다. 이중에서 절대다수는 사상검토 운동이 시작되자 농촌
한광, 목재노 등에 가서 공로동에 지치고, 먹을것을 먹지 못하고 입을
것을 입지 못하여 비참하게 죽었다. 때문에 후천병의 쓰린
광판단이 북한을 방문할시 이전에 알고 있던 사람이나 친척
들을 만나 보라고 하면, 99 프로는 안보이고 천령에 한명이
보여는것까지 돌아오는 비행기에 탑승할시 약 30분간 여유를
두고 비행장에서 만나게 하는바, 그들이 알고있는 행장은 더 말할
없이 부족하며, 용모는 중병을 앓다가 겨우 여타나서 사르잡
혀 온 사람과 비슷하였다고 모든들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기선생은 여러동지들과 함께 4년동안 공부하는 동안 떠난 조국에
대한 교정도 함서 느끼고 특히나 일행배를 나갔으나 같이 돌아 오지 못
하고 농촌에 나간 리탈레씨, 김태경, 김익환, 김두환, 단철, 최철환, 박영
정환권, 최원, 리종인, 장주익 등 많은 동지들에 대하여 종종 이야기도 하며
눈물도 흘리었다. 이력 정력 강가에 들은 함서 출어 나갔으나 조선의 정
은 점점 변주되는 흥두리해 싸다지고 일인독재 권위제타완 전혀 구축 되
서 국가 정책이 반포 정책으로 넘어가는 한편 소련과의 외교 관계도 점점
나빠지고 있는 환경에서 소련 귀국 동지들은 고충당 학교를 졸업하고 자
기 가능대로 각가지 직부들에 배치를 받게 되었다 그들중에서 기
선생은 과거 선출 리자도, 고정원, 신홍나 주필도 하여본 경험어 있어, 신
제흥에 방문을 잡고, 소련에 유입 조선인 신문 "레니기치" 신문 다슈켄은
주재 기자부 부장으로 배치 받고 일하게 되었다 그는 본래 우르베크 공화

· 국에서 대영공부를 하였고, 특히는 우르베코 공화국 총책임자로서 12. 라시르본 동지와 같이 사바르간호 대학을 마당한 친구로서, 그분의 방으로 많이 받으셔서 일할 것을 결심하였던 것이다. 참 그분의 방조를 받아 주축 배정시, 시내 중앙위치에 보기 좋은 건물에 평숙도 넘넘한 사택을 마련하였고, 월급생으로 나물때에도 특히 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정령으로 "공분문화일군"란 칭호를 받게 되었었던 것이다. 물론 기선생이 일생을 걸어오는 동안 그만한 공로는 인민조선에서도 또 귀환후 다시 우르베코에서도 세웠던 것이다. 특별히 당학교를 마당한 다음부터 18년동안이나 "레닌기치" 신문 특파기자 우르베코 공화국 국재소 소장으로서 일하시면서 12대 일갈어 전야에서 일하고 있는 한인들의 생활을 조사하여 그들을 높은 수준으로 향상케 고부추동하였으니, 또 한인 노동자들이 밤방곡곡에 분산되어 일하고 있는 조건하에서 그 어디든, 거리는 불문하고 찾아가서 밤문하인 재로들을 취재하여 신문에 발표함으로써 많은 평리들의 지근간부들의 절찬과 존경을 받았다. 그중에 서도 "벨라르나야 스페스다" 글로르 관리위원장 사회주의 노동이공 영웅 김병화씨, "볼리모젤" 글로르 관리위원장 사회주의 노동 영웅 황만규씨 등은 한인 글로르 지도자로서 기선생과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사임하였는데, 아주 상호 존경하였다. 기선생은 성질이 겸손하고, 생활이 청백하고 원리정연한 분으로서 그의 인간성으로, 그를 알고 지낸 모든 사람들은 존경하였으니, 위선있게 항상 말이하였다. 그러나 기선생은 모순과 결함에 대하여서는 절대를 묵라하지 않는 성질이었다. 기선생은 마지막 시기에 간장암으로 입원하여 1949년 10월에 평원에서 사망하시었다. 기선생의 사모님 김계을 씨는 선생이 사망하신후 삼남 기메두아르드와 같이 경제적인 면에서는 아주 넉넉하게 근심없이 지내었으나, 피전불어 계속 쇠약하면서 살아오시던 신경병으로 인하여 1994년 9월에 세상 떠났다.

기선생이 별세하시 아들 3 형제가 준비된 간부로서 사회
 에서 일하고 있었으나, 맏아들은 대학 나온 다음 제독 모스크바에
 서 살고 있었으며, 차남 기예지씨는 미술가로써 무즈베크공
 화국 예술동맹성원으로 공화국 미술가 전회에 그의 작품이 유화
 전시되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삼남은 제독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 현재에는 무즈베크-한국 합작
 기업소 부직비안으로 아주 열심히 활동하면서, 조선민주
 통일 구국전선 성원으로써 적극적으로 그 사업에 참가하고 있다.
 차남 예지씨는 구국전선 위원이며 그 사업에 열심히 노력
 하고 있다. 삼남 예지씨는 구국전선 상임위원회 후보위원으로써
 한편 유가족후원회의 어엿은 가족들을 위하여 자금 기부도 다소
 조직하고 있다. 이들 삼형제는 북한을 자기의 법적 조국으로
 인정하며 하루속히 통일어 되리라 속히 자기 고향에 돌아가
 아버지가 채 결말하시 못하고 별세하신, 그 일들을 계속
 하여 일하겠다고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다.

기예지씨, 기예득아르드.

1945년 10월 10일, 하뉴켄트에서.